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이고?

14) 본래면목=본지풍광

'본래면목(本來面目)'이 무슨 뜻인지 그 개념을 우리 말로 표현하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설사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본래면목이라는 말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본래면목에 대하여 갖가지 언어적 수사를 동원하여 근사치에 가깝도록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 표현에서 과연 독자들이 본래면목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아심이 듭니다. 이 연재의 제목이 '오늘의 선어'이므로 어려워도 어떻게든 99%에 가깝도록 표현

본래면목이라는 말은 참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것들은 모두 겉모습이나 사전적인 의미를 재해석한 것이지만, 때론 그 의미가 전 변(轉變)하여 "나의 진실한 모습은 무엇인가?" "나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또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은 것을 내 놓아 보아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또 이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나(我)'란 무엇인가?" "무엇이 선의 진리인가?" "무엇이 부처인가?" 하고 묻는 말과 동의어로서 '진실(진정)한 자기' '본래적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어 가운데 '본지풍광(本地風光, 본래의 모습)' 또는 '주인공(主人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본래면목'이라는 말에는 항상 그 앞에 '부모미생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즉 '부모(父母) 미생전(未生前)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상투적으로 "...무엇인가?"는 물음표(?)가 따라 붙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가리킵니다. '미생

는 말이 불어나 영혼이라고 혼동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아직 선의 인공이 열리지 못한 견해입니다. 선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탐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어는 항상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 미생전이란 앞에서 설명했지만 '본래 이전' '번뇌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 즉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본래면목은 '진실한 나의 모습' 또는 '본래적 자기(我)'입니다. 결국 이 말은 똑같은 의미의 두 어휘가 결합된 말로서 근원적인 자기에 대한 강한 반문사입니다. '나(네)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나(네)의 실체는 무엇인가?' 또는 '나(네)는 누구냐?'고 묻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는 것(自問)입니다. 자문과 반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아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가리켜 '영혼이 맑다'고 표현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얼굴만 보아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맑게 보입니다. 이때의 영혼도 어떤 실존하는 영혼을 말하기보다는 '정신이 맑다' '승고하다' 또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예의를 차리지 못했을 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못했을 때 우리는 "면목(面目) 없습니다" "체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비록 상례적인 인사에 불과하지만 이 경우 면목이나 체면은 모두 같은 말로서 진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禪에서는 '세속의 때 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의미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자신에 대한 근원적 성찰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래면목'이란 형태적으로는 '본 모습' 또는 '본 얼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본디 가지고 태어난 순수한 모습 혹은 조금도 화장을 하거나 꾸미지 않은 가식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모습이고,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은 자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철학적인 개념을 좀 넣어서 표현하면 '진실한 자기 자신의 모습' 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에서 본래면목이란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심성(心性)'이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 본성은 티 없이 깨끗한 것입니다. 조금도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사물을 보고 듣고 각각할 줄 아는 존재, 또는 '진여자성(眞如自性, 불변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전(未生前)'은 '아직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을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무슨 태생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풍만 지같이 태생적인 것을 논할 까닭은 없습니다.

선에서 '부모미생전'이란 다른 아닌 '본래 이전' 또는 '근원' '본질'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본래면목은 '본래 나의 모습'으로서 역시 근원적인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부모 미생전(未生前)'과 '본래면목'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가 결합 때는 강조사 역할을 합니다.

본래면목은 화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두를 참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부모 미생전 본래면목'을 영혼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래면목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본래적인 나(我)'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이라

개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일념으로 '염불삼매' 성취

14) 조선의 현씨 부인

영조 41년(1765) 목판본으로 간행된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은 정토수행의 중요성을 환문과 언해(諺解)로 병기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염불의 공덕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해인사판 <염불보권문>은 밀양에 사는 현(姓)씨 부인의 뜻을 받들어 간행한 것으로, 18세기에 살았던 한 여인의 염불수행과 함께 당시의 언어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명연 스님이 <염불보권문>에 기록한 현씨 부인의 일화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경상좌도 밀양에 성은 현씨요, 불명은 본원(本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기사년 12월 어느 날, 마침 가사 화주를 하는 스님이 시주를 청하므로, 홀연히 신심을 내어 보시를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삼경(11시~1시)에 스스로 자기 입에서 염불이 나와 일상의 업으로 삼게 되었다.

추우나 더우나, 가고 오며, 낮과 밤이 길고 짧은지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큰 소리로 염불하였다. 하루

밤낮으로 3만 번씩 하여 36개월이 되는 신미년 12월 24일 삼경에도 염불은 이어졌다. 이 때 서쪽으로 부터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다가와 한가로이 날리면서 가까이 다가왔다. 약기소리가 들려오고 묘한 누각 가운데 세 송이의 꽃이 있었으며, 꽃 위에는 세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

현씨가 부처님을 바라보자,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네가 염불하기를 3년을 채우고 발원하여 부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므로 앞에 나타나 너를 위해 말하노라. 스승을 정하여 참회하고 출가하여 입산하라. 너의 자손과 밭과 땅과 재물이 태산 같지만 모두 허망한 것이다."

현씨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들어 행하여 계를 닦은 지 27년이 되었다. 그동안 무려 25번이나 부처님을 뵈고 법문을 들었다. 그는 하루 저녁에 서쪽을 향하여 예불하며 50배를 하고 항상 일념으로 염불했다.

현씨가 73세에, 목숨을 마칠 때 자손들을 모아 놓

고 유언했다.

"나를 화장한 후에 <염불보권문>을 발행하여 일체 만인을 극락국토로 인도하여야. 나는 지금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이 즐거우니 돌아가리라."

그때 앞에 나타나신 아미타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 대중은 여러 경전과 불·조사의 말씀을 믿고 들어라. 무수한 방편을 설하셨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상근기와 증근기는 정법(正法) 혹은 戒法과 상법(像法: 계법과 유사함)이 견고하여 득도하지만, 하근기의 말법시대는 여러 문이 열려 있거나 혹은 닫혀 있는 것이니라. 말법시대에 일어나야 할 가장 적당한 수행은 정토문이니 왕생을 구하여 염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니라."

이에 현씨가 특별히 막내아들인 각성에게 당부했다. "너희들은 입산하여 불도를 위하여야 한다. 재물을 내어 판을 새겨 <염불보권문>을 발행하여 일체 노·소·남·여에게 아미타불을 염할 것을 권하여라. 매일 이른 아침에 서쪽을 향하여 예불 삼배씩을 한 후 40번씩 염불하는 자는 나의 국토 언뜻 가운데 모두가 태어날 것이니라."

각성은 어머니 현씨의 말씀을 듣고 받들어 봉행하여 <염불보권문>을 새로이 새겨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했다.

현씨 부인은 자나 깨나 일심불란(一心不乱)한 염불정진을 통해 시방불(十方佛)이 현전(現前)하는 염불삼매를 성취하고 극락왕생하였다. 이는 모든 염불행자들이 염원하는 수행의 경지이다. '부처란 상(相)이 없는 것'이지만, 허무가 아니라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법신(法身)은 무량공덕을 갖추었기에, 필요한 때는 부처의 상호를 우주에 가득 차게 나타내는 것이다.

보통 염불삼매에는 인(因)과 과(果)의 두 경계가 있다. 일심으로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관상(觀像)염불, 또는 법신의 실상을 관하는 실상염불(實相念佛), 부처의 명호를 외우는 행법 등을 인행(因行)의 염불삼매라고 한다. 이러한 인행의 염불삼매가 성숙되면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서 시방불이 현전하거나 법신의 실상 즉, 진여불성에 계합하는데 이것을 과성(果成)의 염불삼매라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궁진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슬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작업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체의 자기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각종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기준
가 루 지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지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50,000원

2번 기준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지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죽곡동 54번지 www.msij.co.kr

다들 카페에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쳐보셨어요?
유한영역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그 맛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밭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원주후생식 2개월분 90,000원	히말리아 석청 1kg 500,000원	원주장류 원주장류(정량) 25,000원 원주장류(정량) 2g, 20,000원

무상사 소비자가당심리 대리점 모집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얏고 무자녀 한 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결장을 보급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실리콘·동 99% 함유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릎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훈 합장

특허 10-08063370

NAVER
유한영역 인행화 그 맛
인터넷쇼핑을 **만행화**로 검색해보세요

지압·동 결창

- 초극세사
- 실 리 콘
- 동 99%

가격 15,000원
*사이즈 : 230-280

- ▶ 본사·전시장: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중각역 2번출구 100미터
- ▶ 문의·주문: 02)733-5715 011-9000-5715
- ▶ 계좌: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박해훈) 합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02)456-8831 전라도: 010-2311-0157
강원도: 019-396-1110 경상도: 011-327-7697
충청도: 010-8674-23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